

보도 희망 일시	배포 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배성완 전화: 880-2985, 이메일: seongwan21@snu.ac.kr

배포일: 2025.2.27.(목)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KADA와 함께 '2025 KADA-SNU DTM 도핑방지 워크숍 개최

- 차세대 개도국 스포츠행정가,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함께 도핑방지 가치 확산 모색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 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2월 26일(수) 서울대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(위원장: 이영희, 이하 'KADA')와 함께 '2025 KADA-SNU DTM 도핑방지 워크숍'을 개최했다.
- DTM 과정은 국제스포츠 행정가의 역량 개발을 목표로 교과 과정과 함께 스포츠 현장 견학, 특강,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비교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번에 진행된 특강은 비교과 과정의 일환으로, 기존의 일방향 강의 형식을 넘어 ▲도핑방지 거버넌스 및 사례 분석을 다루는 강의형 ▲교육 퀴즈와 VR 체험을 포함한 체험형 ▲그룹 토론 및 발표로 이루어지는 토론형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접목하여 참가자들이 도핑방지의 중요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
- 김일환 KADA 사무총장은 “이번 워크숍은 미래 스포츠 행정가들에게 도핑방지의 윤리적 가치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자리였다”라며 “앞으로도 체육

전공생과 스포츠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확대해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-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장 강준호 교수는 “도핑방지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며, 이를 실천하는 것은 스포츠 행정가들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다.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스포츠행정가인 DTM 학생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핑방지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,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이러한 가치를 지키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- 서울대 DTM 석사과정생인 바이시나비 파란데(Vaishnavi Parande)는 “도핑방지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, 앞으로 글로벌 스포츠 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” 이라고 소감을 전했다.
- KADA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들의 도핑방지 인식을 제고하고,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도핑방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, DTM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도핑방지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도핑방지 리더십을 구축할 예정이다.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 20여 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

에서 교육을 받는다.